



문 ; 당뇨병의 증상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답 ; 당뇨병의 증상은 3다현상이라고 해서 다음(물을 많이 먹는것), 다식(식사를 많이 하는것), 다뇨(소변을 많이 보는것)가 스스로 느낄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되며 따라서 소변도 많이 보게되고 소변을 많이보나 또 갈증을 느끼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사람의 2~5배에 해당하는 배뇨를 하게되며 음식을 많이 먹어도 허기증이 있어 자꾸만 먹게되며 심한 경우는 보통사람의 3~4배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식에 의해 체중이 늘수도 있으나 차차 여위어가고 피로와 권태 그리고 나른감도 느끼게 됩니다.

피부에는 부스럼이 잘생기고 조그만 상처에도 굼기를 잘하며 세균등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며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는 동안 시력장애가 오기도 하고 안저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하면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안근마비, 여러가지 신경증상, 손발저림, 하지경련, 좌골신경통을 일으킬수도 있으며 위장장애, 변비, 설사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혈압, 심장병, 뇌

졸중, 심장병등과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수에 빠져 사망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약의 효력이 약해져 폐결핵이 악화되기도 하며 폐염, 신우염, 담낭염등의 감염증을 일으킬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을 느끼는것은 아니며 약20% 정도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건강진단등 우연한 기회에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주의를 요하며 특히 40대이후에 갑작스럽게 체중의 변화가 오거나 피로를 자주 느끼고 갈증이 있다거나 시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뇨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당뇨병에 걸리게되어 치료를 시작하게되면 평생치료를 계속하면서 당뇨를 조절하며 살아야한다는것을 생각하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새삼 실감케 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부 자료 제공〉

